

국민 3명 중 2명(65%), 내 자녀는 명문대 가길 원해!

최근 한 대기업이 경력직 채용 시 지원자의 나이와 출신 대학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채용 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연령·학벌 차별이 현실에서는 여전히 작동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68%)은 학벌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학벌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취업'(69%)을 꼽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학벌주의가 불공정하다(51%)고 느끼지만, 75%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판하면서도 자녀에게는 명문대 진학을 바라는(65%)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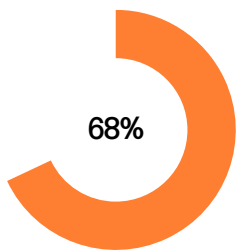
이번 <넘버즈 353호>에서는 학벌을 둘러싼 한국인의 모순된 인식과 AI 시대가 가져올 역량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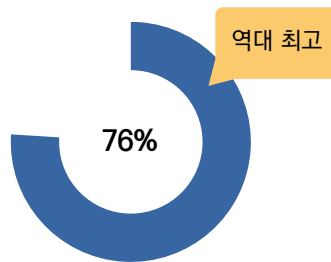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 '우리 사회에서 학벌 필요하다'!

- 우리 국민 10명 7명(68%)은 한국 사회 내 학벌(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인식은 높은 대학 진학률로 입증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취학률*은 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71%로 OECD 평균(48%)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삶의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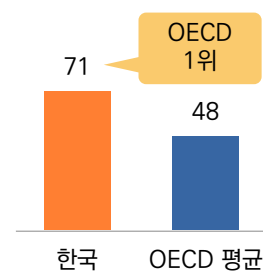
[그림] 한국 사회 내 학벌(학력) 필요성
(2025, 반드시+약간 필요하다)



[그림] 우리나라 대학 취학률* (2025)



[그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2025,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교육인식조사] 학력주의 및 사교육 인식, 2025.11. 12.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5.10.13.~10.15.)

※원출처 : - 취학률(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5&clasCd=7>)

-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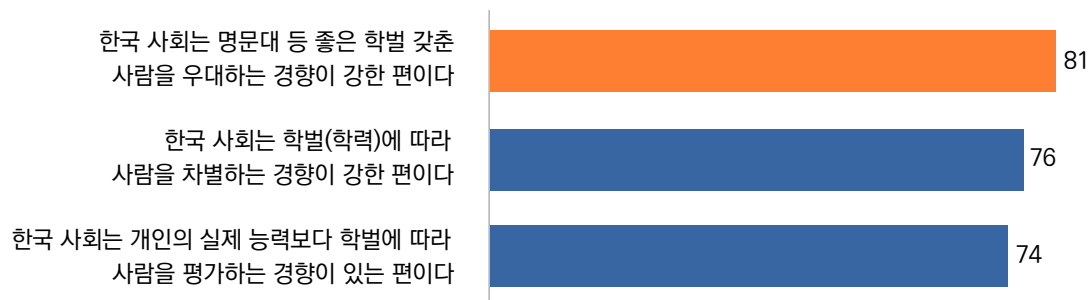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at-a-glance-2025_1c0d9c79-en.html)

*'대학 취학률'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만 18~21세) 대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비율을 의미함/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함

한국 사회, '좋은 학벌 우대 경향 강하다' 81%!

- 응답자의 81%는 '한국 사회는 명문대 등 좋은 학벌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학벌에 따라 차별하는 경향'(76%)과 '학벌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74%)이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보다 출신 학교라는 결과값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한국 사회의 학벌 우대/차별 체감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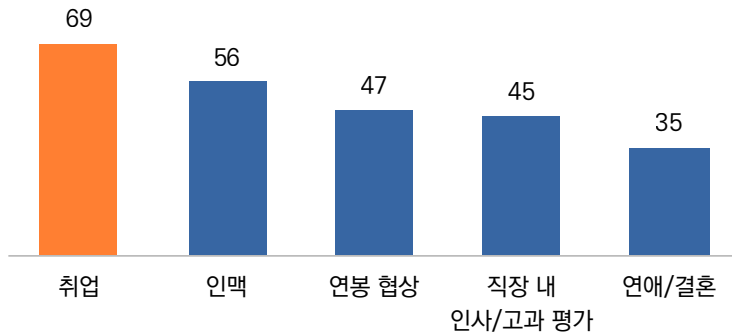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5점 척도

좋은 학벌의 결정적 영향 영역 1위, '취업'(69%)!

- 학벌 우대 경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학벌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는 '취업'(69%)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인맥'(56%)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림] 좋은 학벌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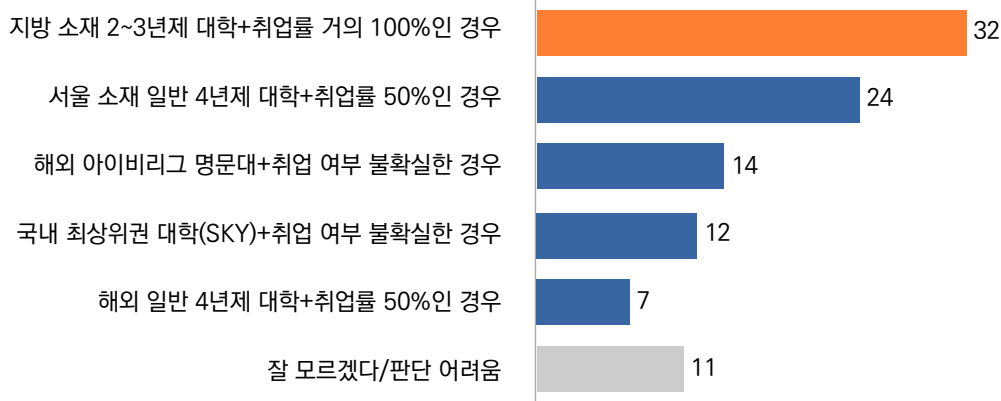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명문대 간판' 보다는 '확실한 취업' 선호!

- 학벌 추구가 단순히 학력 과시가 아니라 사회적 실리 추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아래의 가상 진학-취업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상의 진학-취업 시나리오 선호도를 보면, 선호도를 좌우하는 것은 취업률이지 대학의 명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한국 사회 현실이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벌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학벌주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가상 진학-취업 시나리오별 선호도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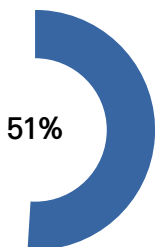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국민 절반 이상, '학벌주의 불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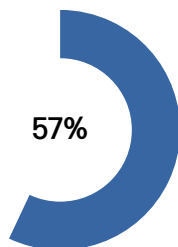
- 우리 국민 51%가 '학벌주의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57%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당위적 비판과 달리 현실적 전망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국민 4명 중 3명에 달하는 75%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학벌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학벌주의를 제도적·윤리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구조적 관성에 의해 결국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한국인의 깊은 내면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림]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매우+약간 그렇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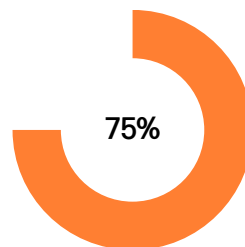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향후 학벌주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매우+약간 그렇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학벌주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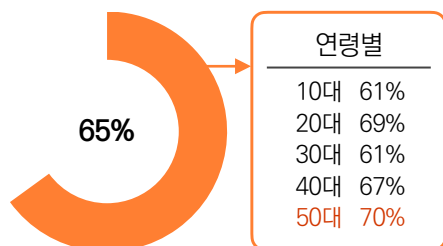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5점 척도

국민 3명 중 2명(65%), 내 자녀는 명문대 가길 원해!

-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좋은 학벌을 갖기 바라는 열망은 확고했다. 국민 3명 중 2명꼴인 65%가 '내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해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학벌이 개인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내 자녀에 대한 학벌 기대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매우+약간 그렇다'*)

나는 나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해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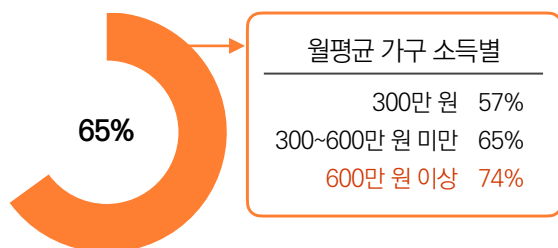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5점 척도

국민 3명 중 2명, '대입 사교육 필요'!

- 자녀가 좋은 학벌을 갖길 원하는 부모의 바람은 대입 사교육 필요성 인식으로 이어진다. 국민 3명 중 2명꼴인 65%가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74%)에서 사교육 필요성을 더 강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소득 격차로 인한 사교육 불평등이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대입 사교육 관련 인식 (2025,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매우+약간 필요하다'*, N=1000)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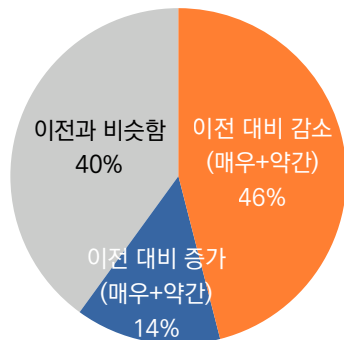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교육인식조사] 학력주의 및 사교육 인식, 2025.11. 12.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5.10.13.~10.15.)

*4점 척도

AI 시대 학벌 중요성, '이전 대비 감소'(46%) 응답이 우세!

- 그런데 학벌주의는 AI 시대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AI의 사회적 확산으로 인한 학벌의 중요성이 '이전 대비 감소'한 것 같다는 응답이 46%로 '이전 대비 증가'(1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AI 시대 학벌(학력)의 중요성 변화 체감도*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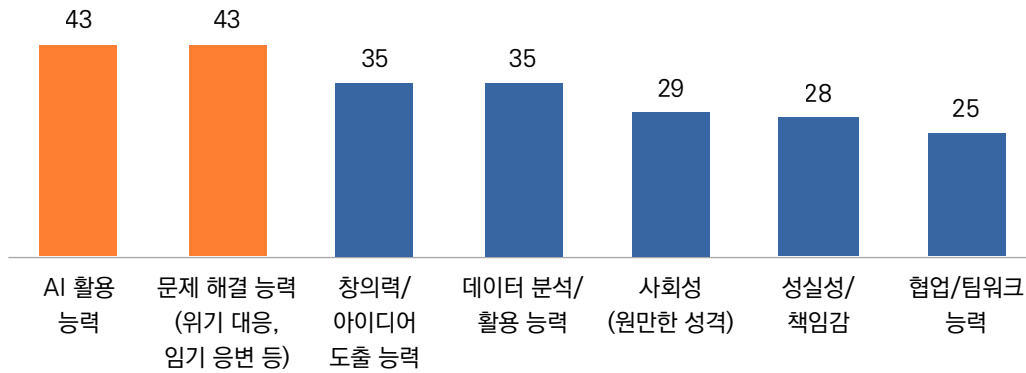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5점 척도

AI 시대 취업, 학벌보다 ‘AI 활용 능력’·‘문제 해결 능력’(각 43%) 중요!

- AI 시대 취업 과정에서 학벌보다 중요해질 요소로 ‘AI 활용 능력’(43%)과 ‘문제 해결 능력’(43%)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창의력’(35%), ‘데이터 분석 능력’(35%), ‘사회성’(29%), ‘성실성’(28%) 순이었다.
- 이는 미래 채용 시장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간판)’보다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역량)’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 AI 시대 취업 과정에서 학벌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 요소 (2026, 13~59세 일반국민, N=1000, 중복응답, 상위 7개,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 사회 내 학력(학벌) 관련 인식 조사, 2026.09.(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9.08.~09.11.)

이번호 요약

1. 국민 절반 이상, '학벌주의 불공정하다'!

우리 국민 51%가 '학벌주의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57%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2. 국민 3명 중 2명(65%), 내 자녀는 명문대 가길 원해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좋은 학벌을 갖기 바라는 열망은 확고했다. 국민 3명 중 2명 꼴인 65%가 '내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해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3. AI시대에 학벌주의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AI시대가 되면서 학벌 영향력이 줄고 있다(46%)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벌보다 'AI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43%)고 생각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두란노서원, 팀 켈러 저/윤종석 역)

관련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사무엘상 16:7)

목회 적용점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8명(81%)이 '좋은 학벌 우대 경향'을 체감하고, 절반 이상이 학벌주의를 불공정하게 여기면서도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바라는(65%) 깊은 내면적 딜레마를 보였다. 사교육 불평등이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 속에서, 부모의 세속적 열망과 불안이 과열된 학벌 경쟁을 지탱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성도들이 세속적 관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는 다음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첫째, 교회는 학벌과 세속적 지위가 삶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세상은 출신 학교와 스펙이라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교회가 먼저 세상적 성취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아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임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양육하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불안에 기반한 학벌 추구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주신 독창적인 달란트와 소명을 찾아 분별하도록 돕는 성경적 자녀 양육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